

군대는 싫어도 PX는 그리워! PX 희귀템 인기

군 복무를 했거나 군인 오빠, 군인 남자 친구, 군인 선배 등 주변에 군인이 있는 사람이라면 PX를 모를 수 없다. PX는 부대마다 구매소를 뜻하는 Post Exchange의 약자로 군대 내에 있는 상점, 즉 군 매점을 뜻한다. PX에 있는 물품은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단 군인에 한한다. 최근에는 오직 PX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희귀템들이 일반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6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불타나게 팔리는 PX상품에는 갯수 제한이 생기기도 한다. '현역 장병이 뽑은 PX 최고 상품' (국방일보 설문조사)에서 공동 1위를 차지한 닥터지의 스네일 크림은 한 사람당 5개로 구매 개수가 한정될 정도이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14만 9,000원이지만 PX에서는 7,500원이라는 비교도 안 될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이 회사의 '레드블레미쉬 클리어 크림'도 공동 1위에 올랐다. 선 크림도 인기이다.

화장품이 불타나게 팔리는 이유는 지인들의 부탁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군인들도 피부 관리에 힘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군 내부 증언이다.

남자들은 군대는 싫어도 PX는 그리워한다는 말이 있다. 특히 '이건 다시 먹고 싶다'고 하는 PX 음식들이 있다.

제대한 남성들이 다시 먹고 싶은 음식 1위는 바로, 슈벨치킨이다. 하지만 슈벨치킨은 마트나 온라인 몰 어디서도 구할 수 없다. 오직 PX에서만 구매할 수 있으며,



▲ '현역 장병이 뽑은 PX 최고 상품'에서 공동 1위를 차지한 닥터지의 스네일 크림

PX에서도 매진되기 전에 빠르게 구입해야 될 정도로 인기가 많다.

군대 양념장이라고 불리는 '맛다시'는 다시 먹고 싶은 음식 2위로, PX에서도 인기가 뜨겁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일부 상품들은 PX에서만 판매되는 것일까?

슈벨치킨 제조사인 삼양냉동 관계자는 "군납용으로 만들어진 거라 일반적으로 따로 판매되지는 않고 있다."며 "판매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쪽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때 군인도 사기 힘들었다던 딸기 맛 몽썰은 현재 시중에서 판매 중이다. 소비자들의 요청이 쇄도하면서 일반 마트나 온라인몰에서 살 수 있도록 판매 영역을 확대했다.

닥터지 관계자는 "최근 들어 군대도 2030세대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의 홍보 채널이 되었다."며 "스네일 크림이나 메디 UV 선크림도 기존에 오프라인매장에 있었지만 현재는 군납용으로 유통되고 있다. 제품의 특성에 따라 유통채널이 다양하게 형성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개도국 포기' 시사 "개도국 지위 실효성 거의 없어"

한국 정부가 20여년 지속해온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현재 농업 분야에 한해 개도국 특혜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정책전환은 지난 7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WTO 개도국 규정을 개정하라는 압박에 따른 대응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이 개도국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지난 4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를 관계 부처들과 협의 중이다. 반대기류가 강했던 예전과 달리 (포기)에 대해 긍정적이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개도국 규정 재검토 발언 이후 개도국 포기"를 시사하는 정부당국자의 첫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등 경제발전국가들이 개도국 특혜를 누리며 WTO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으라고 수차례 경고했다.

그렇지 않으면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미 무역대표부(USTR)가 독자적으로 제재하겠다고 압박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WTO에 90일 이내(10월 23일까지)에 개도국 지위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여기에 한국과 중국, 멕시코, 터키 등이 거론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도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대 중국·인도' 싸움에서 자칫 '미국 대 한국' 싸움으로 구도가 변질될 수 있다. 이런 것을 감수하면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1995년 WTO 가입 이후 농업 분야에 한해 개도국 특혜를 받고 있다.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면서 농업 외 분야에서는 개도국 특혜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 쌀 변동직불금 등 1조4,900억원 규모의 농업보조금 ● 쌀을 포함해 고추·마늘·양파·감귤 등 민감한 농산물에 대한 관세장벽을 크게 낮춰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도국의 경우 농업 생산액의 10% 정도의 보조금을 허용한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보조금이 10%를 넘지 않는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개도국 지위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 주요 20개국(G20) 가입국이자 OECD 회원국이다.

세계은행이 분류한 고소득국가이면서 세계 무역량의 0.5% 이상을 차지한다. 이 같은 '미국 기준'을 적용하면 한국을 포함해 개도국으로 간주되던 30여개 국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야 한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릭

빅토리 바디샵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 ✓ 보험 수리 전문 (일단, 전화 먼저 주세요!!)
- ✓ Lease Return
- ✓ 보험 없는 분들 오시면 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
- ✓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
- ✓ Towing & Rent Car



☎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Email: victoryautobody@gmail.com

